

eISSN: 2733-9793

# 현대미술사연구

제56집  
2024년도 하반기

공공공간을 다시 상상하기  
: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을 사례로  
Re-Imagining Public Space  
: A Case Study of *The Garden of Privatized Delights*

DOI: [dx.doi.org/10.17057/kahoma.2024..56.010](https://dx.doi.org/10.17057/kahoma.2024..56.010)

강지선  
Chison Kang

현대미술사학회

[www.kahoma.or.kr](http://www.kahoma.or.kr)

[www.kci.go.kr](http://www.kci.go.kr)

투고일	2024년 10월 31일
심사일	2024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29일

공공공간을 다시 상상하기  
: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을 사례로\*  
Re-Imagining Public Space  
: A Case Study of *The Garden of Privatized Delights*

강지선 (홍익대학교 연구교수)

Chison Kang (Research Professor, Hongik University)

『현대미술사연구』 제56집 (2024. 12), pp. 237-264.

DOI: dx.doi.org/10.17057/kahoma.2024..56.010

- 
- I. 들어가며
  - II.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 1. 유사 공공공간의 확산
    - 2. 공공공간의 종말?
  - III. 공공공간과 도시의 비전
    - 1. 공공공간을 다시 바라보기
    - 2. 정의로운 도시와 공공성
  - IV. 사례연구: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
    - 1. 전시기획 배경과 목적
    - 2. 전시구성과 내용분석
  - V. 나가며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4594).

## I. 들어가며

증가하는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현대도시들의 중요한 변화이자 쟁점 중의 하나이다. 최근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사 공공공간(quasi-public space), 의사 공공공간(pseudo-public space), 혹은 팝스(POPS, privately-owned public space)와 같은 용어는 모두 공공공간의 사유화로 인한 변화와 문제의식을 나타내면서, 공공공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주로 출입말 팝스(POPS)로 불리는 유사 공공공간은 외형적으로 지역 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공원과 광장, 거리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사적 개발업자나 자산가들이 소유, 운영, 관리하는 공공공간이다. 유사 공공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처럼 보이거나 사설 경비와 CCTV, 비공개 규칙과 같은 가시적, 비가시적 통제가 작동하며 사적 이해에 따라 운영된다. 이 공간들은 기존 공공공간을 정의해왔던 공공소유, 접근성, 개방성, 공공혜택 등에 도전함으로써, 공공성의 사라짐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공공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사유화의 현실에서 공공공간의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오늘날 유사 공공공간의 증가는 성장기계로서 도시에 초점을 둔 신자유주의 도시계획과 정책의 결과이다. 기업가주의(entrepreneurialism) 통치와 경제성장 위주 전략은 공공부문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위와 집회를 위한 공공공간의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축소되고 쇼핑, 휴식, 오락 기능으로 대체되었다. 공공공간은 시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닌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무대가 되어 가는 것이다. 특정 소비 계층이 환영받는 이 공간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된다.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사회 동질화와 계층 간의 격리를 초래한다. 따라서 도시의 사회적, 정치적 삶의 회복과 확장, 포용적인 도시를 위해 공공공간을 다시 보고, 다시 상상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공공공간을 어떤 공적 가치와 도시에 대한 비전으로 다시 그릴 것인가의 물음을 탐구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정치철학자 존 파킨슨(John Parkinson)의 공공공간에 관한 정치적 재해석과 도시계획 이론가인 수전 페인스타인(Susan Fainstein)의 '정의로운 도시(The Just City)' 개념을 고찰한다. 사례로는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관 전시인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The Garden of Privatized Delights)》을 들여다볼 것이다.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본 논문이 제기하는 공공공간을 둘러싼 쟁점들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전시는 점점 더 증가하는 공공공간의 사유화 현상과 이로 인한

영향력을 탐구하면서, 보다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도시 공공공간의 미래 모델을 선보였다. 특히 이 전시는 사유 공공공간을 다르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시민의 정치 활동 수행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강조한 파킨슨의 통찰과 불평등과 배제의 신자유주의 도시 상황에서 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는 사유 공공공간을 공적 개입으로 재구성하려는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한 풍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의 사유화로 인한 변화와 문제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와 파킨슨의 ‘공공공간’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여 공공공간의 대안적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른다. 먼저,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증가하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본다. 이후 파킨슨의 주장을 토대로 공공공간의 정치적 의미를 재고하고,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의 비전과 공공성에 대해 탐구한다. 다음으로, 사례로 넘어가 전시기획의 배경과 목적, 전시구성을 살펴보고, 이 사례가 파킨슨과 페인스타인의 주장으로부터 도출한 공적 가치로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 1. 유사 공공공간의 확산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현대도시들이 당면한 공통적 현상이다. 오늘날 도시와 공공공간 연구에서 유사/의사 공공공간, 팝스라는 새로운 용어의 빈번한 등장은 공공공간의 변화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사/의사 공공공간, 팝스는 모두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은 중앙 혹은 지역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장소처럼 보이지만, 민간 개발업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이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는 공공장소를 뜻한다.<sup>1)</sup>

팝스는 그 대표적 모델로서, 1961년 뉴욕시 용도 지역 규제(zoning resolution)를 배경으로 등장한 미국식 유사 공공공간이다.<sup>2)</sup> 일반적인 공공공간이 지방자치 단체 조

1) Andy Pratt, “The Rise of the Quasi-Public Space and its Consequences for Cities and Culture,” Palgrave Communications, vol. 3, no.1 (2017), p. 2; Charlotte Gould, “The Inclusions and Exclusions of British Public Art: Creating Art for the Successful City or the Just City?,” d’Études Britanniques Contemporaines, no. 63 (2022), p. 2.

2) Stephan Schmidt, Jeremy Nemeth and Erik Botsford, “The Evolution of Privately Owned

례의 적용을 받는다면, 유사 공공공간은 토지 소유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민간 보안 기업이 관리를 맡는다.<sup>3)</sup> 이러한 유사 공공공간은 겉보기와 실제 작동양상은 매우 다르다. 외적으로는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공공간과 비슷해 보이나,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 경비,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계와 통제로 가득 차 있다. 유사 공공공간은 공공공간의 기본적 속성이었던 접근성과 개방성, 다양성을 공격하며, 오늘날 공공공간의 정의와 역할, 이용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유사 공공공간은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다. 역사적 사례로는 19세기 파리에서 등장한 아케이드(arcade)로부터 기업소유의 광장과 쇼핑몰(shopping mall)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유사 공공공간은 현대도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시민광장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공간과 경쟁 구도를 형성해 온 것이다.<sup>4)</sup> 오늘날 쇼핑몰과 광장의 차이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처럼, 이제 사적 소유의 유사 공공공간은 기존 공공공간을 빠르게 대체하며 도시의 만연한 현상이 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원래 공공소유의 토지가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과 통제권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산업 도시, 신자유주의 도시로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sup> 유희 산업지구를 문화지구 등 다른 용도로 전환 시 부지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하거나 이들이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용지가 민간 개발업자나 자산가에게 양도된다.

도시 재개발과 재활성화에 있어서 미국식 자금 조달 방식인 상업활동 촉진 지구(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는 공공공간의 사적 점유를 재촉하는 기제로서 언급된다.<sup>6)</sup> 상업활동 촉진 지구는 개발 기업이 공공공간을 조성한 후 공공에 제공하는 대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의 특혜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즉, 개발자는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토지의 용도 지역 설정 조례(zoning code)를 넘어설 수 있다.<sup>7)</sup> 이

---

Public Spaces in New York City,”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16, no. 4 (2011), p. 270.

3) Jack Shenker, “Revealed: the Insidious Creep of Pseudo-public Space in London,” *The Guardian*, 24, July 2017,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7/jul/24/revealed-pseudo-public-space-pops-london-investigation-map> (2024년 10월 1일 접속).

4) Fábio Bortoli, “The Place of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 the Contemporary City,” *Revista Thésis Anparq* (2018), p. 1.

5) Andy Pratt (2017), p. 2.

6) Anna Minton, *What Kind of World Are We Building? The Privitisation of Public Space* (London: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2006), p. 2.

7) Jeremy Németh, “Defining a Public: The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Public

경우 공공토지가 저렴한 가격에 민간에 넘어가고 추가(보너스) 공간의 특혜가 제공되지만, 개발 이후 이익은 다시 공공으로 귀속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러한 소유권의 이전과 개발 계획, 그리고 그 조건들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가속화하는 근본 원인은 국제 자본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하며, 시장을 따라 움직이는 신자유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복지와 도시에 관한 공공예산의 감축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시 간의 경쟁을 부추겼다. 도시정부는 기업가와 같은 자세로 도시를 더 매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잘 디자인된 공공공간을 지향하였다. 건축, 디자인, 공공미술을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만들기와 도시 마케팅, 도시 재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었고, 많은 공공공간이 재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공공간의 구축을 위해서 민간 자본이 동원되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partnership)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모델이자 도구로서 자리하였으며, 이는 도시 통치에서 기업가의 규범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sup>8)</sup>

기업가주의 영향력과 더불어 공공공간은 도시 마케팅을 위한 투자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다.<sup>9)</sup> 공공공간 사유화를 염려하는 대표적 이론가이자 작가인 안나 민튼(Anna Minton)은 “공공영역(public realm)의 미래에 관한 결정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아닌 기업 수장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10)</sup> 공공장소를 비롯하여 공공부문의 사적 전향의 결과 현대도시와 마을에서 공동소유의 공간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오래된 빗장 광장(gated square)의 사례인 런던의 베드포드 광장(Bedford Square)로부터 최근 개발된 사유 도시인 뉴욕의 허드슨 야드(Hudson Yards)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유사 공공공간의 확산을 목격하고 있다.<sup>11)</sup> 이에 따라 공공공간의 성격과 기능 역시 변화하고 있다. 매개되지 않는 만남과 시민의 발언과 행동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은 축소되고 점점 더 오락과 소비, 휴식의 공간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Space,” *Urban Studies*, vol. 46, no. 11 (2009), pp. 2467-2468; 한소영, 권윤구,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사유화 논의에 대한 흐름」, 『한국경관학회』, vol. 13, no. 1 (2021), p. 102.

8) Marine Dassé, “The Neoliberalization of Public Spaces and the Infringement of Civil Liberties: The Case of the Safer Cities Initiative in Los Angeles,” *Open Edition Journals*, vol. 8 (2019), p. 5.

9) 앞 글, p. 5.

10) Anna Minton (2006), p. 3.

11) Madeleine Kessler and Manijeh Verghese, “Powers of Public Space,” *AA Files,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no. 78 (2021), p. 132.

## 2. 공공공간의 종말?

사유화된 공공공간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정부를 대신하여 자본력이 있는 민간 개발 기업이 높은 품질의 조경과 디자인, 문화 행사를 계획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2)</sup> 이러한 개발은 공적 접근성과 개방성을 조건(약속)으로 시작되지만, 토지 소유권과 통제권의 이전으로 인해 초기의 약속을 법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다. 또한, 기존 공공공간이 공동의 혜택에 열려 있는 반면에 유사 공공공간은 개발업자와 투자자의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sup>13)</sup> 공공용지가 민간 개발자에게 이전되고 추가 면적이 제공되지만, 개발 이후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고, 공공을 위해 재투자되는가는 쟁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유사 공공공간은 민간 경비원과 CCTV 등의 첨단 장비들로 면밀하게 감시된다.<sup>14)</sup> 운영자들은 자체 규준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범위와 행동을 통제한다. 즉, 통제는 운영의 원칙이며 여기에는 ‘강경한 통제(hard control)’와 ‘부드러운 통제(soft control)’의 두 유형이 있다. ‘강경한 통제’는 민간 보안 요원이 어떤 행위나 사건을 강제로 막거나, 사전 허가과 프로그램, 임대를 통해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통제’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 시설물을 없애는 방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특정 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이다.<sup>15)</sup> 잘 드러나지 않는 경계와 통제로 둘러싸인 유사 공공공간에서 누군가를 배제할 모든 법적 특권은 토지 소유주에게 있다. 이곳에서 대중은 상점과 사업체의 고객과 후원자, 사무실 근로자의 자격으로만 환영받으며, 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이용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 된다.<sup>16)</sup>

또한, 민간 소유 주체는 ‘허용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자체 규칙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sup>17)</sup> 공간에서 법적으로 허용 가능 또는 불가능한 행동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통제될 때,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판옵티콘(panopticon) 예처럼 우리는 스스로

---

12) Andy Pratt (2017), p. 2.

13) Müge Akkar, “The Changing ‘Publicness’ of Contemporary Public Spaces: A Case Study of the Grey’s Monument Area, Newcastle upon Tyne,”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10 (2005), p. 2; Ali Madanipour, “Why are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Public Spaces Significant for C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 26, no. 6 (1999), p. 888.

14) Müge Akkar (2005), p. 2.

15) Anastasia Loukaitou-Sideris, “Privatisation of Public Open Space: the Los Angeles Experience,” *The Town Planning Review*, vol. 64, no. 2 (1993), p. 154.

16) Tridib Banerjee, “The Future of Public Space: Beyond Invented Streets and Reinvented Pla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67, no. 1 (2001), p. 12.

17) Jack Shenker (2017), n.p.

규율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감시, 감찰하며 자기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게 된다.<sup>18)</sup> 또한,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공공공간의 존립을 위협한다. 공공공간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개방성을 전제로 하며, 그 개방성이란 물리적인 것과 정보의 개방성을 포함한다. 공공공간은 공동의 규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다. 그러므로 규칙에 관한 정보의 개방성은 공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지리학자 돈 미첼(Don Mitchell)은 공공공간에 대한 규제가 어떤 행동이 합법적이며, 누가 합법적인 공중에 속하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공적 토론의 성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up>19)</sup> 요약하자면, 개방성이란 물리적, 담론적 공공공간을 서로 연결하며, 시민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사회적 배제와 동질화 역시 유사 공공공간의 문제로서 언급된다. 보안, 안전성, 청결이 원칙인 이 공간에서 노숙자, 걸인, 시위대, 거리 판매상, 거리 예술가, 시끄러운 청소년과 아이들은 감시와 퇴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성별, 나이, 인종, 종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외모와 복장이 출입을 막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sup>20)</sup> 사유화된 공공공간은 분리와 배제의 논리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타자들의 유입을 차단한다.<sup>21)</sup> 학자들은 현대의 공공공간이 점점 더 “동질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단절과 계층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2)</sup>

나아가 이러한 유사 공공공간에서 대규모 공적 행사, 정치적 집회, 대면 토론, 시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마이클 소킨(Michael Sorkin)은 도시가 테마파크화 되어 가고, 통제와 정화, 예측 가능성, 즐거운 소비행위에 맞게 설계된 쇼핑몰이 공공생활을 대체함에 따라서 민주적인 공공공간이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디즈니랜드에는 시위가 없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남긴 바 있다.<sup>23)</sup>

18) Bradley L. Garrett, “The Privatisation of Cities’ Public Spaces is Escalating. It is Time to Take a Stand,” *The Guardian*, 4, August, 2015,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aug/04/pops-privately-owned-public-space-cities-direct-action> (2024년 10월 15일 접속).

19) Don Mitchell,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p. 182.

20) Anastasia Loukaitou-Sideris (1993), p. 153.

21) Anastasia Loukaitou-Sideris and Tridib Banerjee,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Los Angeles 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n.p.; 한소영, 권윤구 (2021), p. 104에서 재인용.

22) Anastasia Loukaitou-Sideris (1993), p. 153; Müge Akkar (2005), p. 2.

23) Michael Sorkin, *Vari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New York: Hill and Wang, 1992), pp. xiv-iv.



돈 미첼도 질서, 통제, 오락, 스펙터클이 지배하는 현대 공공공간의 위기를 애기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공간은 상충하는 사회적 관계들이 투쟁하는 장이다.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는 권력자들과 자유로운 정치 활동과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쟁론으로 공공공간은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개인들은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통해 합법적 ‘공중’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며, 이로써 진정한 공공공간은 형성된다.<sup>24)</sup> 그러나 공공공간의 사유화와 상업화는 상호작용, 특히 논쟁을 어렵게 하며 정치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위기 또는 종말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은 공공공간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기능이 사라짐에 대한 반응이다. 유사/의사 공공공간이라는 개념은 바로 공공공간의 공공성 상실이라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탄생한 것이다.

### III. 공공공간과 도시의 비전

#### 1. 공공공간을 다시 바라보기

그렇다면 도시의 정치적 삶과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공간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공공공간과 도시의 비전을 지향하며 공공공간을 다시 그릴 것인가? 나아가 증가하는 사유화 속에서도 우리는 소유권을 넘어서 공공공간을 확장하여 바라보고,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위의 질문들을 탐색해보려 한다. 먼저 존 파킨슨의 주장을 따라가며 공공공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수전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항할 도시 모델과 공공성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파킨슨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특히 시민의 정치 활동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을 다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공간을 정치적 관점에서 재정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공간 계획과 디자인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파킨슨은 전통적으로 ‘소유권’에 기반한 사적-공적 구분을 넘어 공공공간을 확장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글의 순서는 공공공간에 대해 재고한 이후 소유권과 공공공간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파킨슨은 ‘공적인 것’<sup>25)</sup>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공공공간의 개념을 이하

24) Don Mitchell,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5, no. 1 (1995), p. 121.

25) ‘공적인 것’에 관한 파킨슨은 논의는 존 듀이(John Dewey)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개릿 하딘(Garrett Hardin), 레이먼드 고이스(Raymond Geuss)와 같은 철학자

와 같이 논한다. 공공공간은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의미를 충족한다.

1.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
2. 공동 관심사의 공간(공동자원을 사용하거나 공동의 영향력을 갖는 측면에서)
3. 공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sup>26)</sup>

첫 번째 조건인 개방성과 접근성은 지금까지 공공공간을 규정해 온 가장 강력한 의미이다. 이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공공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한다. 여기서 공공공간은 낯선 사람들 간의 매개되지 않은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sup>27)</sup> 이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공적이라고 지칭하였던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광범위한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자 타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다수성의 공간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아렌트는 “타자에 의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의미 있는 까닭은 각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아렌트는 이 다수성을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이자 가능 조건으로 본다.<sup>28)</sup> 따라서 타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개방성은 여전히 중요하며, 공공공간은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 관심사는 공공자원의 이용, 혜택, 영향력과 관련된다. 이는 공통성(the common)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인이나 계층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공공재로서 공적 이익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파킨슨에 의하면 여기서 ‘자원’이란 시간, 돈과 같은 물리적 재화 외에 정보, 기술, 그리고 건강, 행복과 같은 복지 관련 재화를 포함한다. 또한 능력, 기회, 자율성, 자유와 같은 추상적 재화나, 국가 건물, 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자원이 여기에 속한다.<sup>29)</sup> 공동 관심사로서 공공공간은 공공자원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즉, 어떻게 공정하게 혹은 골고루 분배할 것인가? 라는 사회적 가치 판단과 이에 대한 공적 논의를 수반한다.

셋째, ‘공적 역할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은 파킨슨이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의미이다. 공적 역할이란 다양한 실천을 포함할 수 있으나 민

---

들의 연구에 기반한다.

26) John R. Parkinson, “How is Space Public? Implications for Spatial Policy and Democrac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vol. 31 (2013), p. 687; John R. Parkinson, *Democracy and Public Space: The Physical Sites of Democratic Performan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61.

27) John R. Parkinson (2013), p. 685.

2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파주: 한길사, 2015, p. 141.

29) John R. Parkinson (2013), p. 687; John R. Parkinson (2016), p. 51.

주주의와 관련된 주요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정치,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이해관계, 의견, 경험을 표현하고, 타인들과 이를 나누며 논쟁하는 활동을 말한다.<sup>30)</sup> 즉, 첫 번째 공적 역할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거쳐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식적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카페(café), 술집, 클럽(club), 나아가 온라인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유 공공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역할은 공적 주장의 제기이다. 공적 주장의 제기는 가시적이고 개방된 공공장소를 배경으로 한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다수의 대중 혹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시위나 행진 등이 그 예인데 참가자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며, 여기서 가시성과 행동의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한다. 공적 문제와 규범, 공공재 등을 규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행동하지 않음(action/inaction)을 요청하거나, 경험, 의견,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 또는 이러한 대표된 주장을 검토하고, 도전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sup>31)</sup> 요약하자면, 파킨슨이 강조하는 공적 역할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는 아렌트가 언급하였듯이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물리적인 동시에 담론적 공공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파킨슨은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핵심적인 공공공간의 의미는 공적 역할 수행의 장소라 역설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주장의 제기 및 의사결정을 위한 집합체(enterprise)”로서, 대규모와 소규모의 행동과 논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간의 매개되지 않는 만남을 위한 접근성과 개방성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집단행동의 조직 및 정치적 역할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sup>33)</sup> 파킨슨은 정치적 관점에서 공공공간을 다시 바라봄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위한 시민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을 재구성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날 온라인 등의 가상공간이 공론 형성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파킨슨은 정치 활동의 무대로서 물리적 공공공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파킨슨의 논의를 통해 개방성과 접근성, 공동 관심사, 그리고 공적 활동 수행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고찰해보았다. 정치적 삶의 회복과 시민의 공간

30) John R. Parkinson (2013), p. 689.

31) 앞 글, pp. 688-690.

32) 한나 아렌트 (2015), pp. 44-45.

33) John R. Parkinson (2013), p. 696.

으로서 공공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민주주의 정치 활동의 수행이며 이를 통해 물리적, 담론적 공공공간 간의 서로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과 공공공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소유권은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공과 사를 나누는 기준이었다. 반면 파킨슨은 소유권이 언제나 개방성과 접근성을 충족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군 시설 또는 입법부의 예처럼 국가나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공동자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이지만 출입이 제한적인 건물과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공적이거나, ‘대중’의 자유로운 접근과 사용의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하지는 않는다. 공동 관심사 역시 소유권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이 대중교통이나 가스와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나아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공론영역(public sphere)의 출발로서 언급한 17-18세기의 ‘커피하우스(coffe house)’와 ‘살롱(salon)’과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적 소유 공공공간도 물론 대화와 토론, 정치 활동 수행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파킨슨 역시 비공식적인 공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공론의 형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소유권이 개방성과 접근성, 공동 관심사, 공적 역할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공공공간은 외관이나 소유권보다는 우리가 공공의 가치로 어떻게 전유하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소유권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행동의 통제, 규칙의 공개에 관한 권한이 우리가 아닌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공공공간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인 권리이지 특권은 아니다.

## 2. 정의로운 도시와 공공성

도시, 그리고 공공공간은 도시정책과 계획,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신자유주의의 성장 위주 정책은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불평등, 불의(injustice)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 경제적 약자들은 주택, 고용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접근할 권리를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sup>35)</sup> 위정자들은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낙수효과, 즉 성장 혜택이 다수에게 골고루 분배될 것이라는 논리로 지역주민을 설득해왔지만,<sup>36)</sup> 심화하는

34) 앞 글, p. 685.

35) 수전 S. 페인스타인, 『정의로운 도시』, 박인권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p. 20.

36) 앞 책, p. 19.

불평등은 그 이익이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서 수전 페인스타인이 꺼낸 카드는 ‘정의(justice)’이다. 도시연구에 있어서 ‘정의’의 문제는 1960년대부터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도시문화, 도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도시 공공정책의 결과들로 인해 커지는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는 도시 정책의 기준으로서 ‘정의’<sup>37)</sup>와 ‘정의로운 도시’의 모델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페인스타인에 따르면 ‘정의로운 도시’는 “공공투자와 규제가 부유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결과를 산출하는 도시”이다.<sup>38)</sup> 다시 말해, 공공정책과 지원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라 할 수 있다.

페인스타인은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sup>39)</sup>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의를 공정함을 넘어 민주주의와 형평성(equity), 다양성(diversity)으로 확장하고, 이를 도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3의 원칙으로 설정한다.<sup>40)</sup> 그에게 정의란 공공정책이 추구하고 적용해야 할 첫 번째 가치이자 목적으로서<sup>41)</sup> 공적 가치 즉, 공공성이라 할 수 있다.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는 신자유주의 도시계획의 의제였던 경제성장과 효율성으로부터 민주적 참여와 다양성, 형평성의 가치로 전향함으로써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 혜택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공간적으로 형평성 있게 재분배함으로써 불평등과 배제, 불의로부터의 극복이 그의 도시계획과 정책이론을 추동하는 동력이다.

페인스타인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도시’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민주주의적 참여이다.

---

37) Neil Brenner and Nikolas Theodore, *Spaces of Neoliberalism: Urban Restructuring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Oxford: Blackwell, 2002, n.p; Susan S. Fainstein, “The Just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 18, no. 1 (2014), p. 6에서 재인용.

38)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 19.

39)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으로서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의 두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기회의 균등과 차등의 원칙이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불평등이 허용되려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는 최대 이익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바라보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규제하기 위한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롤스의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기본제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약자들의 혜택을 지향하는 페인스타인의 사상과 상당 부분 공유점을 갖는다. 존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에 관해서는 존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재서술』, 에린 켈리 (번), 김주휘 (역), 서울: 이학사, 2017, pp. 83-90의 내용 참조.

40)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 21.

41) 앞 책, p. 31.

도시개발과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하향적 방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는 공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참여와 심의, 특히 여기서 배제된 집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과정의 공정함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42)</sup> 그러나 과정에서의 공정함이 결과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과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3)</sup>

따라서, ‘어떻게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의 형평성은 ‘정의로운 도시’의 두 번째 원칙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다. 페인스타인에 따르면 ‘형평성’은 “공공정책에서 파생된 물질적, 비물질적 편익을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배분하는 것”이다.<sup>44)</sup> 형평성을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있어서 공공의 혜택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를 준거로 삼아야 한다.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례에는 저소득층, 이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과 공공공간을 제공하며, 낮은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sup>45)</sup>

다음으로 세 번째 원칙인 다양성은 “사회적 관계와 물리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 장소에 속한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는 정책적 지향을 의미한다.<sup>46)</sup> 페인스타인은 다양성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주장에 주목하는데, 영은 “집단 분화는 불가피하며, 현대사회 과정의 바람직한 측면이다. 사회 정의는 ...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이 집단 간 차이의 재생산과 존중을 촉진하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다.<sup>47)</sup>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의 예로는 도시 재개발로 인한 강제 이주를 피해야 하며, 도시계획에서 계층 간의 거주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공간에서도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주택, 교육, 일자리 등 기본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을 지원해야 한다.<sup>48)</sup>

페인스타인은 정의로운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정의를 목표로 삼는 정책 입안자와 도시 계획가의 역할을 중시한다. 마을 조직과 풀뿌리 도시 사회운동도 매우 중요한데, 시

42) Susan S. Fainstein (2014), p. 7.

43)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p. 58-59.

44) 앞 책, p. 59.

45) 앞 책, p. 238.

46) 앞 책, p. 102.

47) Iris Marion Young,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47;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 70에서 재인용.

48)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 239.

민들의 정치참여 의식과 자발적인 집단행동이 정치적 압력과 통제로 이어져 정책과 도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9)</sup>

그는 ‘시장’의 혜택을 재분배하는 것에 개입하는 적극적인 정부를 표방하기도 하였다.<sup>50)</sup>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축소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현실화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이다. 나아가, 페인스타인도 인식하였듯이 정의를 구성하는 형평성, 민주주의, 다양성의 원칙 간 긴장 관계의 해소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양성, 차이의 강조가 포용과 상호이해가 아닌 적대와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51)</sup>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안티테제(antithesis)로서 정의를 도시의 비전으로 삼고, 공적 혜택에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평형성 있는 분배와 다양성, 시민참여에 초점을 둔 그의 이론은 커져가는 도시의 불평등과 불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III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파킨슨의 ‘공공공간’, 그리고 페인스타인의 도시와 공공정책에 관한 논의로부터 지향해야 할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두 이론가 모두 참여민주주의적 접근, 즉 도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조하였다. 시민들의 조직적 모임과 발언, 행위의 중요성이 이들의 공유하는 지점이다. 특히 페인스타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약자들의 역할에 의미를 둔다. 둘째, 파킨슨과 페인스타인은 개방성, 다양성, 접근성, 공적혜택을 공공성의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페인스타인의 경우, 불의와 불평등의 도시 상황에서 정의를 목표로 내걸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을 배려한 재분배가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 IV. 사례연구: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

##### 1. 전시기획 배경과 목적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 국가관 전시로, 언씬 건축사무소(Unscene Architecture)의 공동 대표인 마니에 베르게세(Manijeh Verghese)와 마들렌 케슬러(Madeleine Kessler)가 기획하였다.

그 해 국제건축전 총감독을 맡은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하심 사르키스(Hashim Sarkis)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How will we live together)?’를 주

49) 강현수, 「수잔 페인슈타인 : 정의로운 도시를 위한 계획(인터뷰)」, 『국토연구원』, vol. 333, 2009, pp. 92-98의 인터뷰 내용 참조.

50) 수전 S. 페인스타인 (2023), p. 59.

51) Susan S. Fainstein (2014), p. 13.

제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 속에서 포용과 공존을 위한 건축적 상상력과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sup>52)</sup>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전체 주제에 관한 대응으로서 증가하는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를 다루며, 포용적 공공공간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15-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의 대표작 〈세속적 쾌락의 정원(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에서 영감을 받았다. 보쉬는 이 삼면화에서 에덴동산, 쾌락과 욕망의 인간 세계, 지옥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중 기획자들이 주목한 것은 중간 패널 그림인 인간세계이다. 보쉬가 쾌락의 인간세계를 지옥으로 향하는 중간지대로 보았다면, 이들은 이를 사적-공적인 것이 섞인 혼성의 사유 공공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기획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보쉬의 그림에서 에덴동산은 18세기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이전의 완전한 공유지로서 유토피아와 같다면, 지옥은 전체가 사유화된 땅으로서 디스토피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은 공유지와 사유지 간의 경계를 나누고,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이분법적 가치 판단을 뛰어넘고자 하였다. 대신에 중간지대(사유화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가능하며, 이를 어떻게 공공을 위해 바꿀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었다.<sup>53)</sup>

이 전시는 영국의 도시적 상황과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관한 건축가들의 응답이기도 하였다. 공유지의 감소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중 영국은 미국과 함께 유사 공공공간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속화를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이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토지 중 약 4% 정도만이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지이다.<sup>54)</sup> 유사 공공공간의 급격한 증가는 공공공간의 유형과 접근 가능한 계층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였고, 코로나19 범유행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sup>55)</sup>

2011년 미쓰비시 부동산(Mitsubishi Estate) 소유의 런던 파터노스터(Paternoster Square) 광장에서 시위자들이 쫓겨난 사건은 영국 내 유사 공공공간에 관한 논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은 2012년부터 영국의 심각한 공공공간의 사유화 현상을 알리고,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외국 다국적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영국의 공유지가 비밀리에 매각되는 문제와 유

52) “Biennale Architettura 2021: How will we live together?,”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of Venice Biennale 2021 홈페이지 <https://www.labiennale.org/en/architecture/2021> (2024년 9월 24일 접속).

53) Madeleine Kessler and Manijeh Verghese (2021), p. 134.

54) 앞 글, 같은 쪽.

55) 앞 글, 같은 쪽.



사 공공공간에서 시위나 집회, 비상업 예술 행위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유주와 운영 규칙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 등이 보도되었다. 더 가디언은 런던의 환경 기록 센터(Greater London CIC)의 녹지환경 정보(Greenspace Information)와 협력하여 유사 공공공간 약 50여 곳을 지도화하고 이 공간들의 위치, 소유 면적과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였다. 유사 공공공간을 지도화하는 작업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저항의 일환이었다.<sup>56)</sup>

지도화(mapping)를 이용한 또 다른 저항의 제스처로는 가이 슈럽솔(Guy Shrubsole)과 안나 파워일 스미스(Anna Powerll-Smith)가 2016년부터 수행해 온 연구 프로젝트인 ‘누가 영국을 소유하는가(Who Owns England?)’가 있다. 이들은 영국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를 둘러싼 광범위한 공공 지도를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sup>57)</sup> 위와 같은 저항 행동과 논의에 힘입어 런던 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는 2021년 10월 공공공간에 관한 공동의 규칙과 권리를 명시한 공공 런던 헌장(The Public London Charter)을 발족하게 된다. 그리고 대중의 환영, 개방성, 제한 없는 이용, 커뮤니티 중심, 무료, 개인정보의 및 데이터 보호, 투명성, 적절한 관리를 공공공간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 헌장은 개인 소유 공공공간의 소유자, 사용자 및 관리자의 권리와 책임을 공개하여, 공통 기준을 준수하고 동등한 사용과 접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58)</sup>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에서 마니에 베르게세와 마들렌 케슬러는 영국 내에서 일어났던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비판성과 논쟁을 이어간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들은 다소 다른 관점을 취한다. 사유화에 있어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공-사를 가르는 이분법이 초래한 사회 분열에 도전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과 공공 부문, 건축가가 협력하여 “공공공간의 사용, 접근 및 소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발명하는 방법”에 더 무게 중심을 둔다.<sup>59)</sup> 보쉬의 작업 중 가운데 패널(중간지대)에 관한 강조는 양극화된 사고를 지양하면서, 대안 모델을 제시하려는 이들의 태도를 반영한다. 소유권이 접근성과 개방성, 공동 관심사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기획자들의 의견은 파킨슨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정치적 역할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의 의미에 주목한 점도 파킨슨과의

56) Jack Shenker (2017), n.p.

57) Who Owns England? 홈페이지 <https://whoownsengland.org/> (2024년 10월 15일 접속).

58) “Public London Charter: London Plan Guidance (LPG),” London Public Charter 홈페이지 <https://www.london.gov.uk/publications/public-london-charter> (2024년 10월 16일 접속).

59) Madeleine Kessler and Manijeh Verghese (2021), p. 134.

공통점인데, 이 부분은 다음의 전시 분석에서 좀 더 논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공공공간의 접근, 이용, 혜택에 있어서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형평성과 다양성, 포용의 도시를 지향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제공한다.

## 2. 전시구성과 내용분석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sup>60)</sup>은 건축가와 디자이너, 연구자로 구성된 총 5개의 팀이 7개 공공공간의 실험 모델을 선보였다. 영국의 오래된 사적 소유 공공공간의 재활성화, 혹은 재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미래 모델이 구상되었는데, 쇠퇴하고 있는 영국 전통 술집인 펍(pub), 청소년센터, 그리고 시내 변화가(highstreet, 하이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주로 거주자에게만 개방되었던 가든 스퀘어(garden square, 공용정원)의 공적 접근성과 이용, 혜택의 개선이 전시의 주요한 의제였다. 나아가 건축가뿐만 아니라 공공과 사적 부분의 여러 이해 관계자와 지역공동체 간의 협업으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공간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sup>61)</sup>

다양한 사람들 간의 참여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의 매개적, 포용적 역할에 주목한 이 전시는 건축모형과 도면을 보여주는 기존 건축 전시를 넘어서려 하였다. 참여형 공공공간 모델을 설치하여 대화와 토론을 이끌고, 공공공간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또한, 7개의 공간 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연속적인 경로를 만들어, 관람객들이 마치 영국의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몰입의 체험을 강조하였다.<sup>62)</sup>

전시의 시작은 ‘쾌락의 정원(Garden of Delights)’을 주제로 사적 소유의 공용정원인 가든 스퀘어를 조명한다. 풀과 화초, 놀이기구로 꾸며진 정원은 펜스로 가로막혀 있으며, ‘일반인 접근 금지, 거주자 전용(no public access, residents only)’이라 적힌 표지판이 관객들을 맞이한다. 영국 도시와 마을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용 정원(가든 스퀘어)의 접근과 통제의 문제를 도입부에서 드러내며,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60) 이 전시는 2022년 4월 런던 빌딩센터(Building Center)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7개 공공공간 모델의 공간적 구분을 없애 상호작용과 개방성, 접근성을 더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Taylor, “Five Minutes on...’The Garden of Privatised Delights’,” nla: London’s Built Environment Community, 19, April, 2022, <https://nla.london/news/five-minutes-on-the-garden-of-privatised-delights>의 내용 참조.

61) David Taylor (2022), n.p

62) 전시의 가상투어는 V21 Artspace의 웹사이트 <https://v21artspace.com/the-garden-of-privatised-delights>에서 체험할 수 있다.



도판 1. 언씬 건축사무소 <쾌락의 정원>,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관 설치장면. © Cristiano Corte  
© British Council

관한 전시 주제를 알린다.

반면, 전시장의 모든 공간을 지나면 다시 공용 정원으로 되돌아오는데, 전시 초입과 완전히 역전된 정원의 모습이 등장한다(도판 1). 닫혀있던 정원은 놀이, 요리, 재배, 명상 등의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열린 쾌락의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출입금지 대신에 ‘모두 환영(All Welcome)’, ‘같이 요리해요(cook together)’, ‘대화를 나눠요(talk to someone)’ 등 상호 활동을 격려하는 문구와 공동재배와 요리에 쓰일 도구, 시설이 정

원 곳곳에 놓여 있다. 사적 공공공간을 모두를 위한 ‘쾌락의 정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기획자들의 메시지<sup>63)</sup>가 분명히 드러나는 공간이다.

가든 스퀘어를 지나면 펍을 개조한 ‘퍼블리카니(Publicani)’가 나타난다(도판 2). 17세기 출현한 이래로 펍은 사람들 간의 만남, 모임의 조직과 행동을 위한 실내 공공공간으로서 영국의 공공문화의 산실이 되어왔다. 그러나 밀레니엄 시기 4분의 1 정도의 펍이 문을 닫고, 코로나 이후 폐업하는 가게 수가 증가하며, 급격한 사양을 겪고 있다. ‘퍼블리카니’를 설계한 그룹 더 데코레이터즈(The Decorators)는 술집 이상으로 커뮤니티의 교류와 대화, 시민 행동의 공간적 역할을 해왔던 펍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소유 및 이용 모델로서 재구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sup>64)</sup> 소유지분을 다수가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원형인 고대 로마의 ‘퍼블리카니’를 차용한 제목은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이용하며, 이익을 나누어 갖는 공유 모델로서 새로운 펍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도판 2. 더 데코레이터즈 <퍼블리카니>,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관 설치장면  
© Cristiano Corte © British Council

또한, ‘퍼블리카니’의 노래방을 패러디한 영상화면은 다양한 사회계층들, 이주민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 커뮤니티의 사교와 저항의 공간이기도 하였던 펍의 역사 자

63) British Pavilion at the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The Garden of Privatised Delight,” *Exhibition Guide*, British Council, 2021, [https://venicebiennale.org/sites/default/files/exhibition\\_guide\\_garden\\_of\\_privatised\\_delights\\_2021\\_-\\_large\\_print\\_version.pdf](https://venicebiennale.org/sites/default/files/exhibition_guide_garden_of_privatised_delights_2021_-_large_print_version.pdf) (2024년 10월 19일 접속).

64) 앞 글, p. 8.

료를 편집하여 보여준다. 인도계 이민자들이 운영하였던 스메딕(Smethwick)의 데시 펍(Desi Pub)의 이야기, 폐업 위기에 놓인 해크니(Hackney)의 성 소수자들의 펍인 조이너스 암스(the Joiners Arms)를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을 기록한 영상이 시위에 사용되었던 배너와 같이 설치되었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높이를 낮춘 중앙 바 등은 펍에 깃든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암시하는 동시에 펍을 누구나 환영받는 포용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이다.

빌트워크(Bulit Work)가 디자인한 ‘집단데이터부(Ministry of Collective Data)’는 얼굴 인식 기술을 비롯한 통제 시스템과 집단 데이터의 이용과 소유, 혜택의 문제를 다룬다. 미래 공공공간에서 상용화될 얼굴 인식 기술을 거부 혹은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과 집단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집단데이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동의 기반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공공디지털 공간을 제안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감시 시스템을 스스로 통제하고, 집단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활용하는데 주도권을 갖도록 설계되었다.<sup>65)</sup>

사회적 기업 스튜디오 폴포(Studio Polpo)의 ‘상호교류의 변화가(High Street of Exchanges)’는 영국의 변화가가 소비 활동을 넘어 상호돌봄, 배려, 배움, 집회 등의 사회 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예를 들어, 상호작용의 기능을 더한 이발소, 원하는 만큼 돈을 내는 푸드카페로 변신한 슈퍼마켓과 같은 공간의 재구성은 변화가를 기존 상업적 가치와 이익을 뛰어넘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가치를 장려하는 공간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한다.<sup>66)</sup>

‘공유토지부(Ministry of Common Land)’는 땅을 둘러싼 소유권과 이해의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다(도판 3). 이 공간을 기획한 행동주의 건축가 컬렉티브(collective) 퍼블릭 워크스(Public Works)는 땅이 사적 소유와 이익을 위한 상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유 자원으로서의 가능성과 건축의 역할에 관해 탐구하려 한다.<sup>67)</sup>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이들이 제안한 것은 시민의회(citizen assembly)



도판 3. 퍼블릭 워크스 〈공유토지부〉,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관 설치장면. © Cristiano Cort © British Council

65) 앞 글, p. 15.

66) "High Street of Exchanges", British Council, UK at the Venice Biennale 홈페이지 <https://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the-garden-of-privatised-delights/high-street> (2024년 10월 16일 접속)

67) "The Ministry for Common Land," London Metro Politan University 홈페이지 <https://www.londonmet.ac.uk/news/articles/the-ministry-for-common-land/> (2024년 10월 17일 접속).

가 주체가 되어 토지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 숨겨진 토지의 소유와 활용, 규칙들을 공개하는 동시에 시민이 참여하여 토지의 소유권과 이용 관련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례를 방문객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up>68)</sup>

사례로서는 자본 중심 개발과 불평등에 저항하기 위해 건축가, 지역공동체, 행동주의 그룹이 협업한 시민운동 네트워크로서 ‘공공 토지 장악(The public land grab)’이 소개되었다. 런던 램버스 자치구(Borough of Lambeth)의 먹거리 재배프로젝트로 시작한 이 지역 행동주의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프로그램으로서 협동조합 카페, 고용센터 등으로 성장하였다.<sup>69)</sup> 또한, 『누가 영국의 땅을 소유하는가?』, 『새로운 인클로저(The New Enclosure)』와 같은 자료들을 전시하여 사유화의 진행 현황을 알리고 이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거점 놀이터를 넘어(Play With(out) Grounds)’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공공공간이다. “놀이터로 가기에는 너무 나이 들고, 카페에 가기엔 가난하며, 술집에 가기엔 너무 어린” 청소년들이 공공공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다루어졌다. ‘거점 놀이터를 넘어’를 디자인한 브이피피알 건축사무소(vPPR Architects)는 여러 계층의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이들이 원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듣고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점유할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브이피피알 건축사무소의 목표였다. 청소년을 위한 4m 높이 돔 형태의 등반 놀이 시설과 함께 십대들의 공공공간에 관한 생각과 요구를 인터뷰한 사운드트랙이 전시되었다.<sup>70)</sup>

마지막으로, 언썬 건축사무소의 ‘화장실/화장실 개방하기(To-i-let)’는 공중화장실이 폐쇄되거나 사라지는 문제에 대응하여 어떻게 화장실을 다시 공공을 위해 개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전시장 지하에 폐쇄된 사설 화장실 일부를 개방하여, 소유권을 넘어선 다양한 공중화장실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공중화장실은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 관리 등의 문제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으나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의 일부이기도 하다. 언썬 건축사무소는 이러한 공중화장실의 부재가 돈을 내고 화

68) “Explore the exhibition room ‘Ministry of Common Land’ by Public Works,” British Council, UK at the Venice Biennale 홈페이지 <https://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the-garden-of-privatised-delights/ministry-land> (2024년 10월 18일 접속).

69) “The Public Land Grab,” The Culture Commons Quest Office 홈페이지 <https://ccqo.eu/amo-team/the-public-land-grab/> (2024년 10월 18일 접속).

70) “Explore the exhibition room ‘Play with(out) Grounds’ by vPPR,” British Council, UK at the Venice Biennale 홈페이지 <https://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the-garden-of-privatised-delights/play> (2024년 10월 20일 접속).

장실을 이용하거나, 거리 자체를 화장실로 사용하고, 혹은 공공공간의 이용을 막는다는 점에서 배제와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본다.<sup>71)</sup>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할 시설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특정 계층을 배제하는 통제 방식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개방된 무료 공공화장실의 유무는 공공공간의 접근성,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제까지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을 통해 공공공간을 다시 상상하는 7개 실험의 공간 구성을 들여다보았다. 이 전시는 사회, 정치적 역할을 해왔던 영국의 사유 공공공간의 역사적 사례들을 재발견, 재구성하는 동시에 미래 공공공간을 위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폭넓게 생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소유권을 떠나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주도 공공공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추구하였던 도시와 공공공간의 비전은 파킨슨의 정치적인 공공공간과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와 연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쟁점들을 담고 있다.

첫째, 7개의 실험 모델은 파킨슨과 페인스타인이 강조하였던 정치적 행동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을 지향하였다. ‘공유토지부’와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형태에 관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원래 정부의 부서(ministry)를 시민에 의한 통치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또한, 토지와 집단 데이터 등 공유자산의 이용과 분배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펍, 변화가와 같은 기존의 사적 소유 공공공간이 소비를 넘어서 정치적 역할 수행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드러내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되찾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들을 보여준 것이 이 프로젝트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의 관심사로서 공공공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자면, 이 전시는 공적 혜택의 형평성 있는 분배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즉,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공공공간을 동등하게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단데이터부’는 첨단기술로 수집한 데이터들이 사적 이익이 아닌 다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시민들이 정보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전시는 공적 혜택의 분배에 있어서 페인스타인이 강조하였던 소수자들을 위한 형평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공공재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그룹들을 포용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거점 놀이터를 넘어서’와 펍을 개조한 ‘퍼블리카니’를 통해 구현되었다. 청소년, 소수인종, 성 소수자, 장애인 등을 배려한 공간의 구성과 내용은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형평성으로서 ‘정의’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

71) “The Garden of Privitised Delight,” *Exhibition Guide* (2021), p. 19.

하였다.

셋째, 이 전시는 공공공간의 조건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였다. 인종, 성, 장애, 나이, 문화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그 차이를 도시 공간 안에 포용하려 하였다.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공간의 형성과 이를 위한 건축의 역할에 관한 지향점은 다음과 같은 기획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협력하는 것과 건축가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방법, 그리고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개방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더 접근하기 쉽고 환영할 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sup>72)</sup> 즉, 이 전시는 사유 공공공간의 접근성, 활용, 혜택을 개선함으로써 다층적인 사회계층이 환대받고, 향유하는 공공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문제를 논하자면, 기획자들의 의도는 소유권을 떠나서 공적 가치로 공간을 전유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소유권은 이 전시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예를 들어 ‘퍼블리카니’, ‘집단데이터부’, ‘공유토지부’는 지역공동체, 시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며, 혜택을 나누어 갖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였다. 소유권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 공공공간의 접근과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일반적으로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유사 공공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시위와 집회 등의 발언과 행동이 위법으로서 간주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공간의 조건으로서 개방성, 접근성, 공적 관심, 공적 활동 수행에 대한 공격은 공공공간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영국의 공공공간의 위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출발한 전시이다. 그러나 유사 공공공간의 확산이라는 전 세계가 당면한 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더 포용적인 도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의 큰 결실은 기획자들이 런던 광역시와의 대화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런던 공공 현장의 개발에 기여했다는 점이다.<sup>73)</sup> 기획자들이 목표하였던 공공, 사적 부문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협업을 통한 문제의 해결 방식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라는 성취를 이끌었다. 새로운 공공공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자의 권리와 책임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개방적이며, 접근할 수 있으며, 공공의 사용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이 현장은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관한 장기간의 논의와 연구, 저항 행동의 결

72) David Taylor (2022), n.p.

73) 앞 글, n.p.

과였다.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파킨슨이 강조한 개방성, 공동의 관심, 정치 활동 수행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추구하였다. 또한, 페인스타인의 시민참여, 형평성, 다양성의 원칙에 따른 도시의 정의와 공공성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특히 건축이 사적 이익을 위한 미적 도구로 이용되는 신자유주의 도시에 대항한 급진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이 사람들 간의 관계 맺음, 대화와 집단행동을 촉발함으로써 어떻게 공중을 형성하고, 공공공간을 다시 상상하며, 사회 변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전시는 사유화된 공공공간을 공적 가치로 새롭게 상상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증가하는 사유화 가운데서도 공공공간을 다르게 바라보고, 행동하기를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 V. 나가며

본 논문은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공간의 사유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공공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존 파킨슨의 공공공간에 관한 정치적 재해석과 수전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 개념을 참조하였다.

본 논문은 먼저 증가하는 사유화의 원인과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그 내용으로서 도시 통치와 정책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공공부분과 민주주의의 축소가 공공공간의 사유화를 재촉하는 근원적인 이유임을 파악하였다. 유사 공공공간의 증가는 이용자들의 범위와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 공론의 형성을 제한한다. 또한, 사회적 동질화와 계층 간의 분리를 야기하며, 공공공간에서 상호작용, 시위와 집회 등 정치적 행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공공간의 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사회, 정치의 무대로서 공공공간의 의미 상실의 반영이 반영되어 있었다.

III장에서는 공공공간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그리기 위한 작업으로서 파킨슨의 공공공간에 관한 민주주의 정치적 재해석과 페인스타인의 ‘정의로운 도시’를 살펴보았다. 파킨슨의 논의를 통해 개방성과 접근성, 공동 관심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활동 수행의 장소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시민참여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불평등과 배제, 불의의 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페인스타



인의 ‘정의로운 도시’의 비전과 그 원칙으로서 시민참여, 다양성, 형평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파킨슨과 페인스타인으로부터 접근성, 개방성, 다양성, 공동 관심사, 형평성을 공공성의 의미로 도출해보았다.

IV장에서는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 사례를 통해 공공공간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의식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전시는 지역공동체와 시민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영국의 사유 공공공간의 역사적 사례들을 재발견하고 재구성하는 동시에 미래 공공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유사 공공공간의 전 세계적 확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디자인을 제시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공간의 재활성화와 재편에 있어서 시민 주도의 방향성 접근 방식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도 보여주었다.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사유 공공공간을 파킨슨과 페인스타인이 강조하였던 시민참여, 접근성, 다양성, 형평성과 같은 공적 가치로 재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사례는 불평등과 배제를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접근, 소유와 이용을 개선한 새로운 공공공간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도시의 비전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사례는 공공공간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 ■ 주제어(Keywords)

공공공간(public space), 유사 공공공간(quasi-public space), 사유화(privatization), 공공성(publicness), 정의로운 도시(the just city)

## 참고문헌

- 강현수, 「수잔 페인슈타인: 정의로운 도시를 위한 계획(인터뷰)」, 『국토연구원』, vol. 333, 2009, pp. 85-103.
- 수전 S. 페인스타인, 『정의로운 도시』, 박인권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 존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재서술』, 에린 켈리 (편), 김주휘 (역), 서울: 이학사, 2017.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역), 파주: 한길사, 2015.
- 한소영, 권윤구, 「현대 공공공간의 공공성-사유화 논의에 대한 흐름」, 『한국경관학회』, vol. 13, no. 1 (2021), pp. 94-111. DOI: <https://doi.org/10.36466/KLC.13.194>.
- Akkar, Müge. “The Changing ‘Publicness’ of Contemporary Public Spaces: A Case Study of the Grey’s Monument Area, Newcastle upon Tyne.”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10 (2005), pp. 95-113. DOI: <https://doi.org/10.1057/palgrave.udi.9000138>.
- Banerjee, Tridib. “The Future of Public Space: Beyond Invented Streets and Reinvented Plac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67, no. 1 (2001), pp. 9-24. DOI: <https://doi.org/10.1080/01944360108976352>.
- Bortoli, Fábio. “The Place of the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in the Contemporary City.” *Revista Thésis Anpaq* (2018), pp. 1-13.
- Brenner, Neil and Nikolas Theodore (eds.). *Spaces of Neoliberalism*. Oxford: Wiley-Blackwell, 2002.
- Dassé, Marine. “The Neoliberalization of Public Spaces and the Infringement of Civil Liberties: The Case of the Safer Cities Initiative in Los Angeles.” *Open Edition Journals*, vol. 8 (2019), pp.11-18. DOI: <https://doi.org/10.4000/angles.595>.
- Fainstein, Susan S. “The Just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 18, no. 1 (2014), pp. 1-18. DOI: <https://doi.org/10.1080/12265934.2013.834643>.
- Garrett, Bradley L. “The Privatisation of Cities’ Public Spaces is Escalating. It is Time to Take a Stand.” *The Guardian*, 4 August 2015. [www.theguardian.com/cities/2015/aug/04/pops-privately-owned-public-space-cities-direct-action](http://www.theguardian.com/cities/2015/aug/04/pops-privately-owned-public-space-cities-direct-action) (2024년 10월 15일 접속).
- Gould, Charlotte. “The Inclusions and Exclusions of British Public Art: Creating Art for the Successful City or the Just City?.” *Études Britanniques Contemporaines*, no. 63, 2022, pp. 1-12. DOI: <https://doi.org/10.4000/ebc.12635>.
- Kessler, Madeleine, and Manijeh Verghese, “Powers of Public Space.” In *AA Files,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no. 78 (2021), pp. 132-142. DOI: <https://www.jstor.org/stable/27307217>.
- Kirby, Andrew. “The Production of Private Space and Its Implications for Urban

- Social Relations.” *Political Geography*, no. 27, vol. 1 (2008), pp. 74-95. DOI: <https://doi.org/10.1016/j.polgeo.2007.06.010>.
- Loukaitou-Sideris, Anastasia. “Privatisation of Public Open Space: the Los Angeles Experience.” *The Town Planning Review*, vol. 64, no. 2 (1993), pp. 139-167. DOI: <https://www.jstor.org/stable/40113601?origin=JSTOR-pdf>.
- \_\_\_\_\_, and Tridib Banerjee, *Urban Design Downtown: Poetics and Politics of Form*, Los Angeles a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Madanipour, Ali. “Why are the Design and Development of Public Spaces Significant for C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vol. 26, no. 6 (1999), pp. 879-891. DOI: <https://doi.org/10.1068/b260879>.
- Minton, Anna. *What Kind of World Are We Building? The Privitisation of Public Space*. London: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2006.
- Mitchelle, Don. *The Right to the City: Social Justice and the Fight for Public Spa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 \_\_\_\_\_.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85, no. 1 (1995), pp. 108-133. DOI: <https://doi.org/10.1068/b260879>.
- Németh, Jeremy. “Defining a Public: The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Urban Studies*, vol. 46, no. 11 (2009), pp. 2463-2490. DOI: <https://doi.org/10.1068/b260879>.
- Parkinson, John R. “How is Space Public? Implications for Spatial Policy and Democracy.”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vol. 31 (2013), pp. 682-699. DOI: <https://doi.org/10.1068/c11226r>.
- \_\_\_\_\_. *Democracy and Public Space: The Physical Sites of Democratic Performanc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Pratt, Andy. “The Rise of the Quasi-Public Space and its Consequences for Cities and Culture.” *Palgrave Communications*, vol. 3, no.1 (2017), pp. 1-4. DOI: [10.1057/s41599-017-0048-6](https://doi.org/10.1057/s41599-017-0048-6).
- Schmidt, Stephan, Jeremy Nemeth and Erik Botsford. “The Evolution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in New York City.” *Urban Design International*, vol. 16, no. 4 (2011), pp. 270-284. DOI: <https://doi.org/10.1057/udi.2011.12>.
- Shenker, Jack. “Revealed: the Insidious Creep of Pseudo-public Space in London.”

- The Guardian*, 24, July 2017. [www.theguardian.com/cities/2017/jul/24/revealed-pseudo-public-space-pops-london-investigation-map](http://www.theguardian.com/cities/2017/jul/24/revealed-pseudo-public-space-pops-london-investigation-map) (2024년 10월 1일 접속).
- Sorkin, Michael. *Vari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New York: Hill and Wang, 1992.
- Taylor, David. "Five minutes on...The Garden of Privatised Delights." nla: London's Built Environment Community, 19 April 2022. <https://nla.london/news/five-minutes-onthe-garden-of-privatised-delights> (2024년 10월 26일 접속).
-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of Venice Biennale 2021 홈페이지 [www.labiennale.org/en/architecture/2021](http://www.labiennale.org/en/architecture/2021) (2024년 9월 24일 접속).
- British Council, UK at the Venice Biennale 홈페이지 [www.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http://www.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 (2024년 10월 16일 접속).
- Building Center 홈페이지 [www.buildingcentre.co.uk/news/aarticles/play-without-grounds](http://www.buildingcentre.co.uk/news/aarticles/play-without-grounds) (2024년 10월 20일 접속).
- British Pavilion at the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The Garden of Privatised Delight.*" *Exhibition Guide*, British Council. [www.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xhibition\\_guide\\_garden\\_of\\_privatised\\_delights\\_2021\\_-\\_large\\_print\\_version.pdf](http://www.venicebiennale.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exhibition_guide_garden_of_privatised_delights_2021_-_large_print_version.pdf) (2024년 10월 16일 접속).
- London Metro Politan University 홈페이지 [www.londonmet.ac.uk/news/articles/the-ministry-for-common-land/](http://www.londonmet.ac.uk/news/articles/the-ministry-for-common-land/) (2024년 10월 17일 접속).
- London Public Charter 홈페이지 [www.london.gov.uk/publications/public-london-charter](http://www.london.gov.uk/publications/public-london-charter) (2024년 10월 16일 접속).
- The Culture Commons Quest Office 홈페이지 <https://ccqo.eu/amo-team/the-public-land-grab/> (2024년 10월 18일 접속).
- V21 Artspace의 홈페이지 [www.21artspace.com/the-garden-of-privatised-delights](http://www.21artspace.com/the-garden-of-privatised-delights) (2024년 10월 24일 접속).
- Who Owns England? 홈페이지 [www.whoownsengland.org](http://www.whoownsengland.org) (2024년 10월 15일 접속).

## 국문초록

증가하는 ‘공공공간’의 사유화는 현대도시들의 주요한 현상으로, 도시와 공공성 관련 연구에 있어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다. 본 논문은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공공공간을 어떠한 공적 가치와 도시의 비전으로 회복하며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공공공간 사유화가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공부문과 민주주의의 후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하여 공공공간을 다시 그리기 위한 이론으로서 존 파킨슨의 공공공간에 관한 민주주의 정치적 재해석과 수전 페인스 타인의 ‘정의로운 도시’ 개념을 살펴본다. 사례로서는 본 논문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공공공간의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한 2021년 제17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영국관 전시인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을 고찰한다. 《사유화된 쾌락의 정원》은 사유 공공공간을 파킨슨과 페인스 타인이 강조하였던 시민참여, 접근성, 다양성, 형평성과 같은 공적 가치로서 재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사례는 불평등과 배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접근성, 소유권과 활용을 개선한 새로운 공공공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도시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 Abstract

The increasing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has become a critical phenomenon in modern cities and a hotly debated issue in urban and public space studies.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while addressing how to restore and reconstruct public space with public value and a vision for the city. Neoliberalism has led to the regression of the public sector and democracy and accelerated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pace. To resist the neoliberal order and re-imagine public space, this paper draws on John Parkinson’s political reinterpretation of democracy in relation to public space and Susan Fainstein’s concept of The Just City as theoretical frameworks. As a case study, this paper examines The Garden of Privatized Delights, the British pavilion exhibition in the 17th International Architecture Exhibition of Venice Biennale 2021, which explores alternative possibilities for public space. This exhibition resonates with the concerns raised in this paper, re-imagining privatized public space based on public values such as citizen participation, accessibility, diversity, and equity, as emphasized by Parkinson and Fainstein. Furthermore, the case study envisions an inclusive and just city by proposing a new model for public space that enhances accessibility, ownership, and use by addressing issues of inequality and exclusion.